

【 공 개 사 과 문 】

저는 지난 4월 24일부터 3일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리시 협의회가 주최한 [2023년 자문위원 역량강화 교육]에 참가한 바 있으며, 24일 저녁에 교육에 참가한 분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시청 관계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불필요한 행동을 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크나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900여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근무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에 대해 구리시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조합원 여러분께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900여 공직자가 존중받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23년 5월 2일

구리시의원 신동화